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김유란	학번	
이메일	k.yuran.0919@gmail.com		

대학원명	Duke University / MIDP program (1-year)	미국
기간	1년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21년 1월 22일

신 청 인 : 김유란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 듀크 대학교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스캐롤라이나 정착 시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다음카페 NC KOREAN (<https://cafe444.daum.net/c21/home?gpid=17rMq>)
- 본인과 남편, 그리고 6개월 아기와 함께 출국하였기 때문에 정착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차와 생활집은 KDI 선배를 통해 8월경 미리 연락하여 무빙을 받기로 하였으며, 집은 사전에 계약을 해두고 새로운 집으로 바로 이사를 하였음 (무빙은 이사 다음날 받음)
- 초기 정착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관계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처리하고 갔으며 (인터넷, 세입자 보험 가입, 전기 연결 등), 무료 해외전화 어플을 설치하여 전화로 처리하였음
- 1월 7일이 정식 개강이었으나 12월 중순에 입국하여 학기 시작 전 충분히 정착 시간을 가졌던 것이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귀국 시점을 고려한다면 개인 사정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됨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 듀크 대학교는 학생 학업생활 및 사회생활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하는 학교임을 느낄 수 있었음
- (글쓰기 전담교수) 듀크 대학교의 가장 좋은 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MIDP 프로그램에 특화된 영어 전문 교수님이 있다는 점임. 외국인만을 위한 교수님은 아니고 미국학생들도 글쓰기와 프레젠테이션을 더 잘하기 위해 교수님에게 면담요청을 하곤 하는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의 경우 중요 페이지는 전담 교수님과 사전에 면담하여 보고서를 발전시킬 수 있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던 점 중에 하나였음
- (교육의 질) 공부를 위한 소스(Source)는 정말 많이 제공하는 학교이며, 사립학교답게 학업에 필요한 학술자료 지원 뿐만 아니라 도서관, 유료 소프트웨어 무료 제공 등등 물리적인 지원도 매우 많은 편임.
- (외부활동) 외국인 학생과 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음. 코로나 이전에는 Potluck Party, 언어 교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외국인 친구 뿐 만 아니라 외국학생에 관심이 많은 현지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음. 남편도 배우자 자격으로 언어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현지 학부생과 주기적으로 만났음. 코로나 이후에는 모든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만날 기회가 적어진 것이 매우 아쉬웠음.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 (강의) MIDP과정은 특히 재정과 조세 쪽에 특화되어 있어 이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들이라면 수업을 선택하기 훨씬 재미있고 수월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인은 환경 정책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MIDP 과정의 수업과 병행하여 환경대학원 수업을 신청하여 수강하였음. 타 대학원 수업을 교차 수강

하는 것에 매우 관대한 편이며, 만약 타 대학원에서도 본인의 연구 주제와 일치하는 수업을 찾기 어려우면 교수님을 따로 섭외해서 별도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음 (3학점 인정). 정해진 강의만 듣는다면 본인의 관심사와 잘 맞지 않는 수업이 많다고 느낄 수 있으나, 타 대학원 및 개별 연구 (Independent Study)를 활용한다면 자신의 연구주제를 깊이 있게 연구하기 좋음.

- (KDI 강의와의 연계성) 통계수업의 경우 KDI 수업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음.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은 거의 수강했음을 전제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경제관련 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미/거시는 KDI에서 듣고 가는 것을 추천.
- (학기별 학점배분) 보통 봄학기 4과목, 여름학기 2과목, 가을학기 3과목을 추천함. 본인도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함. 다만, 올해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여름학기 수업들이 모두 취소되고 Independent Study로 수강하도록 권고되어서 본인은 부득이하게 3학점만 수강하였음. 그 여파로 가을학기를 4과목 수강해야 했는데 생각보다 힘든 일정이었음. (특히 학기 끝나자마자 귀국을 계획하고 있다면 정말 힘들...)
- (논문과 지도교수) 지도교수에 따라 상당히 다를 것으로 생각됨. 본인의 경우 입학당시 학교 생활 전반에 조언을 주는 Advisor Professor와 논문 지도교수가 같았기 때문에 지도교수와 논문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음. 코로나로 인해 논문 발표가 취소되어 다른 해보다 논문심사 준비가 수월했다는 평이 있었음. 논문 작성을 준비하기 위해 봄학기에 한 달 가량 금요일마다 세미나가 열림. (하지만, 세미나에서 속성으로 배운 내용보다는 가을학기에 정책분석 수업을 들으면서 작성하게 되었음)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 한국인들은 대부분 캐리, 채플힐, 또는 북부 랄리에 거주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학군을 고려한 선택으로 알고 있음.
- 본인은 아이가 어려 학군을 고려하지 않고 더럼 아파트에서 거주하였음
- 렌트가 타 지역에 비해 저렴했으며, 마트가 도보 5분 / 대형 쇼핑몰이 도보 15분 / 소아과 차로 5분 거리에 있고, 트레일이 아파트 단지와 연결되어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매우 편하게 생활하였음.
- 더럼의 치안에 대해 정착 전에 고민이 많았으나, 살아보니 다운타운이 아니면 치안은 매우 안전한 편이었음.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 (의료보험과 병원) 아기가 6개월일 때 출국하여 소아과 방문할 일이 많을 것 같아 본인과 아기는 학교 의료보험을 가입함. 미국에서 6번 가량 소아과에 방문하였고, 학교 보험의 명성(?) 덕분에 소아과 방문 시 자부담은 거의 없었음 (웰키즈 체크업 무료, 예방접종 무료, 응급실 자부담 발생). 주치의는 한국계 미국인 선생님이로 일부러 골랐으며, 덕분에 의사소통이 훨씬

편하다는 장점이 있었음. 출국 전에 예방접종 기록을 영문으로 준비해갔고, 영유아 검진 결과표를 영어로 번역해감.

- (코로나 이후의 병원) 본인이 다녔던 소아과는 코로나 이후 유증상자 병원과 웰키즈 체크업을 위한 병원을 분리하여 운영하였으며, 오히려 코로나 이후 대기시간이 짧아지고 개별 진료실에 먼저 들어갈 수 있었다. 다만, 열이 나는 경우 무조건 방문은 금지되고 화상이나 유선으로 상담이 가능했음.
- (코로나 검사) 듀크 대학교는 전학생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의무로 시행하였음. 한국과 달리 셀프 검사로 본인이 본인의 코를 후비는(?) 수준의 검사임. 학교 외의 사설 약국에서도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며 드라이브 스루 검사로 셀프 검사임. 비용은 무료이나, 미국내 의료보험이 있어야지만 무료임. (독감 백신도 미국 의료보험이 있어야지만 무료이며, 한국에서 의료보험을 가입해서 간 남편의 경우 백신 비용으로 70불을 지출함)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음. 듀크 대학교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초반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등등 비상사태가 터지면서 자본력이 막강한 사립대학의 힘을 느낄 수 있었음. 주에서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고 지침을 내려도 학칙에 따라 전학생 온라인 수업을 강행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지침이 요동을 칠 때에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는 등 학생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 귀국한 이후에는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안내 메일이 발송되는 것으로 보아 학교 차원에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노스캐롤라이나 주도 산과 바다가 모두 있는 미국에서 흔치 않은(?) 주로 멀리 여행을 가지 못했지만 국립공원과 주 내 명소들을 단기간으로 다니기만 해도 충분히 즐거운 생활이었음. 식재료도 덕분에 매우 풍부해서 다양한 해산물과 과일을 사시사철 즐길 수 있었음. 서부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렌트비 등이 월등하게 저렴하여 만족스러운 생활이었음. 다만,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의 경우 아주 별로일 수 있는데...대형 아울렛도 거의 없고, 아울렛에도 코치와 토리버치가 최상위 브랜드인 수준임.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 (비자) 비자 발급의 경우 대행업체 없이 진행하였으며, 미성년 자녀는 대사관 인터뷰에 동행하지 않아도 됨. (다만 모든 서류는 갖춰서 가져가야 함). 학교 측에서 I-20도 워낙 빨리 발급해주었으며, 현재 듀크대 학사지원부에 한국인 직원분이 근무 중이므로 한국어로 소통한다면 학교 측 서류는 처리하기 더욱 수월할 것으로 보임. 그 외 코로나 이후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음.
- (출입국) RDU까지 비행기를 타고 간다면 환승편 밖에 없음. 입국 심사는 최초 미국에 떨어지는 공항에서 받게 되며, 이 때 짐을 모두 찾아 짐검사를 다시 받고 탑승해야 함. 입국 수속에 대한 걱정이 많았으나, 아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나와 가장 오래 걸렸음에도 2시간가량으로 끝났음. 코로나

이후 입국심사 상황은 알 수 없음. 다만, 한국으로 출국하는 비행기편을 탔을 때 아틀랜타 공항의 국제선 터미널은 식당과 카페 등 모든 시설이 폐쇄된 상태였음. 대신 국내선 터미널은 모든 식당이 열려 있었음...

- (정착 대행서비스 등) 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의 폭이 다양하겠지만, 노스캐롤라이나의 경우 유명한 곳이 2~3군데 정도 되는 것 같고, 본인은 정착 대행 서비스 없이 정착하였음. 입국 시 공항에서 집까지 이동과 무빙 짐 이동을 대행으로 맡겼었는데, 그다지 좋은 경험이 아니어서 귀국시에는 차를 렌트하여 공항까지 이동함. 은행의 경우 BOA 한국 부지점장님이 유명하 신데 초반에 은행계좌 개설 업무 할 때 통역해주시는 정도의 역할임. 신용카드 발급시에는 유용하였음.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1년이라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학교를 선택하는 시점부터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되실 겁니다. 본인의 우선순위와 니즈를 잘 파악해서 학교를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듀크대의 경우 사시사철 좋은 날씨, 저렴한 생활비, 학업을 충실하게 서포트 해줄 학교를 원하시는 분께 추천드려요. 하지만, 쇼핑, 명소 방문, 논문 부담없는 편한 학교 생활 등을 원하신다면 다른 학교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정 우 재	학번	
이메일	wj7402@gmail.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Duke University Sanford School / Master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국가) 미국
기간	2021.1.5 ~ 2021.12.24	[귀국일: 2021년12월24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22년 2월 일

신청인 : 정 우 재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 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 Duke university는 North Carolina주의 Durham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연중 온화하고 쾌적하며, 겨울에도 눈이 별로 오지 않고 한국에 비해 덜 추운 편입니다. 최근에는 가족을 동반하여 오시는 분들의 경우 학교가 위치한 Durham 지역보다는 Cary나 Chapel hill 지역에 많이 거주하십니다.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 제가 참여하였던 Duke University Sanford School of Public Policy 내 MIDP 과정은 Public Policy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조세, 재정 분야의 개발정책을 중심으로 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각국 정부기관 등에서 온 직원들이 많은 편이지만 (주로 개발도상국 국가), 미국에서 학부과정을 마치고 World Bank, IMF 등으로의 취업을 목표로 입학한 미국 학생들도 일부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주로 아이비리그를 포함 미국내 명문 대학교에서 학위를 마무리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설, 학생지원 등 교육 관련 인프라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만큼, 학생들에게도 이에 걸맞는 높은 수준의 학업성과를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학기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 제가 수학하였던 MIDP 과정은 석사 학위과정으로 1년에 30학점을 이수하여야 했습니다. 석사논문(정책 보고서) 관련 학점이 3학점이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다면 수강과목 수로는 9과목(과목당 3학점)을 이수하였습니다. KDI 수업을 이미 들으신 분들이라면 과정을 마무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숙제량이 꽤 되는데다 저 같은 경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봄학기 중에는 종종 밤늦게까지 숙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 학기별로는 봄학기 4과목(12학점), 여름학기 1과목(6학점), 가을학기 3과목(9학점)을 이수하였고 그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봄 학기의 경우 학점이 부여되지는 않았지만 Writing 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Recommended라고 하지만 거의 모두 들었습니다).

학기	과목명	교수	시험	과제
봄	- Policy Analysis for development - Public Budgeting - Social Policy - Financial Markets and Investments	N. Mirovitskaya R. Kelly R. Fernholz T. Bollerslev	N/A N/A N/A F	Short 3 + Term paper 1 P/S 3 + Term Paper 1 Short 3 + Term paper 1 Weekly Quiz
여름	- Project Appraisal and Risk management	F. Fernholz	FI	P/S 3 + Case study 1
가을	- Empirical Analysis -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 Public Finance	S. Dickerson K. Vyborny G. Shukla	M+F M+F M+F	P/S 3 P/S 3 + Case study 1 P/S 3

* M: Mid-term test, F: Final test, P/S: Problem set

- 봄학기 수업은 대체로 중간, 기말 시험 없이 페이퍼를 작성하는 수업 위주로 수강하였습니다. 상기 과목 중 Policy Analysis는 필수 이수과목으로 상기 언급된 것처럼 여러 개의 short paper와 1개의 term paper 작성 이외에도 프리젠테이션 등 수업 부담이 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Financial Markets and Investments 수업은 경제학과에서 제공하는 수업으로 재무관리, 투자론을 주로 다루는데 이와 비슷한 과정인 이진수 교수님의 investment management를 수강하였어서 그리 어렵지 않게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 여름학기 1과목은 사실 대학원생뿐 아니라 외부인들도 등록이 가능한데 주로 개발도상국 정부의 executive level에서 참가하는 6학점짜리 수업입니다. 따라서 4주 동안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intensive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여름학기 월/수, 화/목 수업처럼 6-7주씩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과제도 주어진 일과시간(오전 9시~오후 4시)에 거의 다 마무리하는 것이었기에 생각보다는 학업부담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 가을학기는 미국 대학의 연간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학기라서 그런지 Paper 작성보다는 중간/기말 시험을 보는 Lecture 위주의 수업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며 저 또한 이 같은 수업을 위주로 수강하였습니다. Empirical Analysis는 KDI의 QM 과목과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데 이미 한번 들었던 내용들이 많아서 수월하게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Policy는 필수 이수과목인데 과제도 많고 마지막 프리젠테이션도 있어서 학업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 논문(Master's Project) Process는 봄학기 수업부터 시작됩니다. 앞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봄학기 때 논문 작성 관련 기초지식을 배우는 2학점 수업을 5회에 걸쳐 수강하게 됩니다. 이때 논문 Proposal을 작성하고 담당 교수가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거의 10개월에 걸쳐 논문 작업을 진행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12월중 논문을 제출하면 1학점을 추가로 획득하게 됩니다 (아래 표 참고). 학기를 진행하면서 이 같은 작업을 하기가 만만찮기 때문에 본인이 익숙한 주제를 선택하여 쓰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2월	논문 주제 선정 및 Proposal 제출
5월	Prospectus (연구계획서, 15장 내외) 제출
7월	Defense meeting (교수 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대상)
10월	담당교수에게 최종 Draft 제출
11월	담당교수 Feedback & Improvement
12월 초	MP Presentation to professors and students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 저는 West Cary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Cary 지역은 학교 소재지인 Durham과 NC 주도인 Raleigh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확장을 거듭하고 있는 거주 중심의 신도시라서 타운하우스, 아파트 등이 대체로 깔끔합니다. 저는 NC korean cafe를 통해

운 좋게 한인이 4대째(4년간) 거주하시던 Cary 지역 타운하우스를 가구, 집기 등과 함께 인수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아파트에서만 살아서 보안 등과 관련해 타운하우스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 내지는 두려움이 있었습디만, 막상 도착하여 지내보니 동네가 워낙 안전하여 지내는 동안 별 걱정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거주했던 West Cary Amberly 지역은 타운하우스 단지 내 Residents Club이 꽤나 훌륭하여 여름에 아이들과 함께 수영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 Cary 지역의 또다른 장점은 NC 유일의 H mart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기호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가족은 양식은 그다지 즐기는 편이 아니라 대부분의 한식 재료들을 판매하고 있는 H mart를 통해 음식에 대한 불편함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근의 Durham이나 Chapel hill 지역은 대학생 중심으로 젊은이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괜찮은 브런치 카페나 양식당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 골프를 좋아하신다면, NC는 좋은 선택지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뉴욕이나 워싱턴 같은 북쪽 지역과는 달리 Durham-Raleigh-Chapel-hill 지역은 거의 4계절 365일 내내 골프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대도시와 비교하면 골프 비용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대부분의 미국 주 들이 좋은 골프장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NC 같은 경우 유명한 퍼블릭 골프코스인 Pinehurst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Myrtle beach, Hilton Island 등 겨울철 동부지역민들의 골프 휴양지로 유명한 명소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다소 빡빡할 수도 있으나 시간관리를 잘 하신다면 골프 같은 취미활동을 한국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저렴한 가격에 자주 즐기실 수 있습니다.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KDI 학업 과정에서 GMP 2년차를 미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KDI와 제휴관계가 맺어진 학교인 만큼 이미 관련 인프라가 충분히 잘 갖춰져 있어 짧은 기간의 미국생활을 알차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학업 외적으로도 여행, 취미 생활을 가족과 함께 더욱 의미 있게 경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 생활에 대한 정보

- 비자는 Duke MIDP 과정에 합격하게 되면 별 무리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Duke visa service center에서 F 또는 J 비자 중 무엇을 선호하느냐고 물어봤던 것인데, 저 같은 경우는 별 생각없이 F 비자를 선호한다고 당시 답변했었는데, 만약에 선택이 가능했다면 SSN (social security number)도 함께 나오는 J비자를 받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출입국은 NC 주도의 공항인 RDU까지 가는 직항이 없어서 보통 워싱턴 DC나 애틀랜타를 경유합니다. 아무래도 DC보다는 애틀랜타 항공편이 가격도 싸고 구하기도 쉬운 거 같습니다. 다만 DC를 꼭 경유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미리 표를 확보해 두시기를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8. 후배들에게 하고싶은 말

- GMP 2년차 미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 잊지 못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오시기 전에 충분히 준비하시고, 학업일정에 맞게 미리 각종 계획을 잘 수립하신다면, 분명 평생 잊지 못할 뜻깊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김윤겸	학번	
이메일	ynwoon@kdis.ac.kr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Duke University (Master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국가) 미국
기간	2021.1.6 ~ 2021.12.25	[귀국일: 2021년12월25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21 년 12 월 30 일

신청인 : _____ 김윤겸 (인)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 학교 등)

- Duke University는 North Carolina의 Durha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Washington D.C와 New York City가 각각 4시간 및 8시간 거리에 있으며, 서쪽으로는 Charlotte이 2시간 거리, 남쪽으로는 Orlando가 9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기후는 연중 온화하고 쾌적하며 겨울에도 눈이 별로 내리지 않을 정도로 춥지 않습니다. 가족분들을 동반하여 오시는 분들의 경우 조용하고 깨끗하며 교육환경이 좋은 Cary나 Chapel Hill에 많이 거주하시는 편입니다.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 Duke University의 Sanford School of Public Policy에 개설된 MIDP (Master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과정은 Public Policy 분야에서 미국 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교수진, 커리큘럼 등에서 상당한 수준을 자랑하는 석사과정입니다. 학생들은 주로 각국 정부기관 및 중앙은행 등에서 온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 1년에 이수해야 하는 학점은 30학점이며 논문 제출 (3학점 인정)이 의무입니다. 일반적으로 봄학기에 13학점 (논문 1학점 포함), 여름학기에 6학점, 가을학기에 11학점(논문 2학점 포함)을 이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저는 봄학기에 Policy Analysis of Development, Public Budgeting and Financial Administration,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 financial market and investment 및 논문 관련 Mini Seminar 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이 중 몇가지 과목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우선 Policy Analysis of Development 과목은 전공필수 과목으로 정책학의 기본적인 방법론을 배울 수 있어 논문 작성에 큰 도움이 되는 유용한 과목입니다. KDI 대학원에서 이준수 교수님의 Policy Process Analysis 수업을 미리 수강해 보시면 동 과목을 이수하실 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 과목은 기초적인 미시계량경제학 과목이며 MIDP 과정에서 제공되는 과정은 아니며 MPP 과정에서 제공되는 과정입니다. Duke Sanford School은 MIDP 과정 외에도 MPP 과정이 있는데 교수님의 승인만 받으면 양쪽의 전공 과정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Financial market and investment 과목은 Duke Sanford School에서 제공되는 과정이 아니며 Economics Department에서 제공되는 과정입니다. Duke MIDP 과정은 전공필수 과목이 12학점으로 나머지 18학점은 본인이 원하는 다른 대학원 과정의 수업을 들어도 되는 flexible함이 장점입니다. 따라서 경제,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의 경우 경제 또는 경영대학원 수업

이수를 통해 본인의 관심분야를 얼마든지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논문 관련 Mini Seminar 과목은 1학점 짜리 과목으로 MIDP 과정을 통해 본인이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계획서 작성 및 연구방법론 등을 정리해보는 수업입니다.

- 여름학기에는 Project Appraisal and Risk Management 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동 과목은 6학점짜리 과목으로 4주에 걸쳐 월~금요일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까지 진행되는 intensive 한 수업입니다. 경제적 편익, 비용 분석을 통해 특정 project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수업으로 경제학 이론수업 외에도 다양한 case study가 제공됩니다.
- 가을학기에는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Policy, Macroeconomic Policy, Public Finance in Developing Economies를 수강하였습니다.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Policy는 전공필수 과목으로 기초적인 후생경제학 및 경제성장론 이론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Macroeconomic Policy는 거시경제학의 이론적 내용에 대한 강의와 함께 수강생들 각자가 논문을 읽고 정리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Public Finance 수업은 재정학의 주요 이론들을 배우는 수업으로 정부지출, 조세제도 2파트로 나누어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 논문은 연구계획서 작성, 중간보고서 발표, 최종 보고서 제출 및 발표회 등의 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되며 이 과정에서 논문은 지도교수와의 feedback 과정을 통해 작성해 나가게 됩니다. 영문으로 글을 쓰는 일은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논문의 내용을 빠르게 작성하고 영문 교열 등의 작업에 시간을 좀 더 할애할 수 있도록 본인이 익숙한 주제를 선정하여 논문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 제가 살던 Cary라는 지역은 주거환경이 매우 훌륭한 지역입니다. 주거비는 일반적인 타운하우스의 경우 매월 1700~2200 달러 정도로 여타 대도시들에 비해 저렴한 수준이었습니다. 주변에 Target, Walmart, Costco 등 대형마트들이 많아 싼 가격에 다양한 제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었으며 특히 한인마트인 H-mart가 근처에 있어 한국음식이 그리울 때마다 자주 이용하였습니다.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 유학생할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유치원을 다니며 영어를 빠르게 습득하고 친구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렸던 점이었습니다. 첫째 아이의 경우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나 1년 뒤 한국에 돌아갈 시점에는 현지인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였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동네에 마운에 맞는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매일 그 친구들의 집에 놀러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영어실력을 키울 수 있으므로 아이들이 현지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한국에 돌아갈 때쯤 상당한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GMP 2년차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Duke University의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훌륭한 교수님들과 학우들과 함께 즐거운 학교 생활을 보냈으며 여유로운 미국생활 속에서 여행도 열심히 다니면서 가족들과 추억을 쌓으며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Duke university의 MIDP 과정은 학업적으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Cary에서의 생활은 온화한 기후와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가족분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 Duke MIDP과정에 합격하시게 되면 Duke Visa Service Center에서 I-20를 보내주며 동 서류만 있으면 무리 없이 F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의 경우 Raleigh Durham International Airport 까지 직항이 없기 때문에 주로 Washington D.C 또는 Atlanta에서 경유하게 됩니다. 미국에 도착하시기 전에 미리 NC Korean Café 등을 통해 현지 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일은 현지 한인업체의 정착서비스를 일부 활용하시는 게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 GMP 과정 2년차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느꼈던 감정들은 오랜 기간 제 마음속에 간직될 것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2년차 GMP 과정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만드시길 기원합니다.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김유란	학번	
이메일	k.yuran.0919@gmail.com		

대학원명	Duke University / MIDP program (1-year)	미국
기간	1년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21년 1월 22일

신 청 인 : 김유란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 듀크 대학교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스캐롤라이나 정착 시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다음카페 NC KOREAN (<https://cafe444.daum.net/c21/home?gpid=17rMq>)
- 본인과 남편, 그리고 6개월 아기와 함께 출국하였기 때문에 정착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차와 생활집은 KDI 선배를 통해 8월경 미리 연락하여 무빙을 받기로 하였으며, 집은 사전에 계약을 해두고 새로운 집으로 바로 이사를 하였음 (무빙은 이사 다음날 받음)
- 초기 정착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관계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처리하고 갔으며 (인터넷, 세입자 보험 가입, 전기 연결 등), 무료 해외전화 어플을 설치하여 전화로 처리하였음
- 1월 7일이 정식 개강이었으나 12월 중순에 입국하여 학기 시작 전 충분히 정착 시간을 가졌던 것이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귀국 시점을 고려한다면 개인 사정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됨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 듀크 대학교는 학생 학업생활 및 사회생활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하는 학교임을 느낄 수 있었음
- (글쓰기 전담교수) 듀크 대학교의 가장 좋은 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MIDP 프로그램에 특화된 영어 전문 교수님이 있다는 점임. 외국인만을 위한 교수님은 아니고 미국학생들도 글쓰기와 프레젠테이션을 더 잘하기 위해 교수님에게 면담요청을 하곤 하는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의 경우 중요 페이지는 전담 교수님과 사전에 면담하여 보고서를 발전시킬 수 있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던 점 중에 하나였음
- (교육의 질) 공부를 위한 소스(Source)는 정말 많이 제공하는 학교이며, 사립학교답게 학업에 필요한 학술자료 지원 뿐만 아니라 도서관, 유료 소프트웨어 무료 제공 등등 물리적인 지원도 매우 많은 편임.
- (외부활동) 외국인 학생과 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음. 코로나 이전에는 Potluck Party, 언어 교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외국인 친구 뿐 만 아니라 외국학생에 관심이 많은 현지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음. 남편도 배우자 자격으로 언어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현지 학부생과 주기적으로 만났음. 코로나 이후에는 모든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만날 기회가 적어진 것이 매우 아쉬웠음.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 (강의) MIDP과정은 특히 재정과 조세 쪽에 특화되어 있어 이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수업을 선택하기 훨씬 재미있고 수월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인은 환경 정책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MIDP 과정의 수업과 병행하여 환경대학원 수업을 신청하여 수강하였음. 타 대학원 수업을 교차 수강

하는 것에 매우 관대한 편이며, 만약 타 대학원에서도 본인의 연구 주제와 일치하는 수업을 찾기 어려우면 교수님을 따로 섭외해서 별도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음 (3학점 인정). 정해진 강의만 듣는다면 본인의 관심사와 잘 맞지 않는 수업이 많다고 느낄 수 있으나, 타 대학원 및 개별 연구 (Independent Study)를 활용한다면 자신의 연구주제를 깊이 있게 연구하기 좋음.

- (KDI 강의와의 연계성) 통계수업의 경우 KDI 수업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음.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은 거의 수강했음을 전제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경제관련 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미/거시는 KDI에서 듣고 가는 것을 추천.
- (학기별 학점배분) 보통 봄학기 4과목, 여름학기 2과목, 가을학기 3과목을 추천함. 본인도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함. 다만, 올해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여름학기 수업들이 모두 취소되고 Independent Study로 수강하도록 권고되어서 본인은 부득이하게 3학점만 수강하였음. 그 여파로 가을학기를 4과목 수강해야 했는데 생각보다 힘든 일정이었음. (특히 학기 끝나자마자 귀국을 계획하고 있다면 정말 힘들...)
- (논문과 지도교수) 지도교수에 따라 상당히 다를 것으로 생각됨. 본인의 경우 입학당시 학교 생활 전반에 조언을 주는 Advisor Professor와 논문 지도교수가 같았기 때문에 지도교수와 논문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음. 코로나로 인해 논문 발표가 취소되어 다른 해보다 논문심사 준비가 수월했다는 평이 있었음. 논문 작성을 준비하기 위해 봄학기에 한 달 가량 금요일마다 세미나가 열림. (하지만, 세미나에서 속성으로 배운 내용보다는 가을학기에 정책분석 수업을 들으면서 작성하게 되었음)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 한국인들은 대부분 캐리, 채플힐, 또는 북부 랄리에 거주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학군을 고려한 선택으로 알고 있음.
- 본인은 아이가 어려 학군을 고려하지 않고 더럼 아파트에서 거주하였음
- 렌트가 타 지역에 비해 저렴했으며, 마트가 도보 5분 / 대형 쇼핑몰이 도보 15분 / 소아과 차로 5분 거리에 있고, 트레일이 아파트 단지와 연결되어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매우 편하게 생활하였음.
- 더럼의 치안에 대해 정착 전에 고민이 많았으나, 살아보니 다운타운이 아니면 치안은 매우 안전한 편이었음.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 (의료보험과 병원) 아기가 6개월일 때 출국하여 소아과 방문할 일이 많을 것 같아 본인과 아기는 학교 의료보험을 가입함. 미국에서 6번 가량 소아과에 방문하였고, 학교 보험의 명성(?) 덕분에 소아과 방문 시 자부담은 거의 없었음 (웰키즈 체크업 무료, 예방접종 무료, 응급실 자부담 발생). 주치의는 한국계 미국인 선생님이로 일부러 골랐으며, 덕분에 의사소통이 훨씬

편하다는 장점이 있었음. 출국 전에 예방접종 기록을 영문으로 준비해갔고, 영유아 검진 결과표를 영어로 번역해감.

- (코로나 이후의 병원) 본인이 다녔던 소아과는 코로나 이후 유증상자 병원과 웰키즈 체크업을 위한 병원을 분리하여 운영하였으며, 오히려 코로나 이후 대기시간이 짧아지고 개별 진료실에 먼저 들어갈 수 있었다. 다만, 열이 나는 경우 무조건 방문은 금지되고 화상이나 유선으로 상담이 가능했음.
- (코로나 검사) 듀크 대학교는 전학생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의무로 시행하였음. 한국과 달리 셀프 검사로 본인이 본인의 코를 후비는(?) 수준의 검사임. 학교 외의 사설 약국에서도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며 드라이브 스루 검사로 셀프 검사임. 비용은 무료이나, 미국내 의료보험이 있어야지만 무료임. (독감 백신도 미국 의료보험이 있어야지만 무료이며, 한국에서 의료보험을 가입해서 간 남편의 경우 백신 비용으로 70불을 지출함)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음. 듀크 대학교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초반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등등 비상사태가 터지면서 자본력이 막강한 사립대학의 힘을 느낄 수 있었음. 주에서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고 지침을 내려도 학칙에 따라 전학생 온라인 수업을 강행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지침이 요동을 칠 때에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는 등 학생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 귀국한 이후에는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안내 메일이 발송되는 것으로 보아 학교 차원에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노스캐롤라이나 주도 산과 바다가 모두 있는 미국에서 흔치 않은(?) 주로 멀리 여행을 가지 못했지만 국립공원과 주 내 명소들을 단기간으로 다니기만 해도 충분히 즐거운 생활이었음. 식재료도 덕분에 매우 풍부해서 다양한 해산물과 과일을 사시사철 즐길 수 있었음. 서부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렌트비 등이 월등하게 저렴하여 만족스러운 생활이었음. 다만,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의 경우 아주 별로일 수 있는데...대형 아울렛도 거의 없고, 아울렛에도 코치와 토리버치가 최상위 브랜드인 수준임.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 (비자) 비자 발급의 경우 대행업체 없이 진행하였으며, 미성년 자녀는 대사관 인터뷰에 동행하지 않아도 됨. (다만 모든 서류는 갖춰서 가져가야 함). 학교 측에서 I-20도 워낙 빨리 발급해주었으며, 현재 듀크대 학사지원부에 한국인 직원분이 근무 중이므로 한국어로 소통한다면 학교 측 서류는 처리하기 더욱 수월할 것으로 보임. 그 외 코로나 이후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음.
- (출입국) RDU까지 비행기를 타고 간다면 환승편 밖에 없음. 입국 심사는 최초 미국에 떨어지는 공항에서 받게 되며, 이 때 짐을 모두 찾아 짐검사를 다시 받고 탑승해야 함. 입국 수속에 대한 걱정이 많았으나, 아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나와 가장 오래 걸렸음에도 2시간가량으로 끝났음. 코로나

이후 입국심사 상황은 알 수 없음. 다만, 한국으로 출국하는 비행기편을 탔을 때 아틀랜타 공항의 국제선 터미널은 식당과 카페 등 모든 시설이 폐쇄된 상태였음. 대신 국내선 터미널은 모든 식당이 열려 있었음...

- (정착 대행서비스 등) 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의 폭이 다양하겠지만, 노스캐롤라이나의 경우 유명한 곳이 2~3군데 정도 되는 것 같고, 본인은 정착 대행 서비스 없이 정착하였음. 입국 시 공항에서 집까지 이동과 무빙 짐 이동을 대행으로 맡겼었는데, 그다지 좋은 경험이 아니어서 귀국시에는 차를 렌트하여 공항까지 이동함. 은행의 경우 BOA 한국 부지점장님이 유명하 신데 초반에 은행계좌 개설 업무 할 때 통역해주시는 정도의 역할임. 신용카드 발급시에는 유용하였음.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1년이라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학교를 선택하는 시점부터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되실 겁니다. 본인의 우선순위와 니즈를 잘 파악해서 학교를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듀크대의 경우 사시사철 좋은 날씨, 저렴한 생활비, 학업을 충실하게 서포트 해줄 학교를 원하시는 분께 추천드려요. 하지만, 쇼핑, 명소 방문, 논문 부담없는 편한 학교 생활 등을 원하신다면 다른 학교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